

십년만에 개정판 나온 우리 당대의 역사서

강만길 지음 「고쳐 쓴 한국현대사」

역사의 서술이란 객관적 시각으로 실제 있던 사실만을 그대로 옮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남겨져야 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를 과감히 극복해 고찰자의 양심에 뿌리내린 강직한 자세로 엮어져야 한다. 특히 동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는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진실성이 빛나는 역사책이 새롭게 수정, 출판됐다. 바로 강만길 교수가 엮은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가 그것이다.

1984년 발간되었던 이 책은, 그 당시 여타의 역사와는 다른 신선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독립운동사 속에 공산주의 운동을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었고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한쪽에 치우친 역사가 아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씌어져 역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어둡던 시절에 잘못 해를 입은 지도 모를 작품을 용기있게 출간한 강만길 교수의 결단력은 뒤이어 젊은 역사연구자들을 자극하여 이제는 그의 역사관이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고쳐 쓴 한국현대사」는 1910년 이후 식민지시대의 역사로부터 노태우 정권기까지의 주 민생활사를 중심으로 씌여졌다. 권력중심체 위주의 서술방식을 극복하고 분류사적 방법으로 당시대의 생활모습과 경제수준 그리고 문화활동 등을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제시로 엮었다.

84년판에 신지 않았던 전·노 정권을 새롭게 기술하여 포함했고 민족사적 역사론에 입각하여 민중운동과 노동운동을 사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 그동안 관료주의 역사가 자칫 오류를 범하며 삭제했던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노력했고 문학을 포함한 예술부분에서 민중적 성취를 크게 부각시켜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값진 성과를 재평가했다.

이 책의 전면이 해당될 수 있는 「고쳐 쓴 한국현대사」 또한 함께 재출간되었다. 개화기부터 일제침략까지 서술된 근대사도 강만길 교수의 업적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식민지 사관에서 비롯된 역사의 왜곡과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의도적 삭제로 비뚤어진 우리의 역사가 이제 용기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른 길을 찾게 돼 무척 흐뭇함을 느낀다.

업적과 성과위주의 교과서적 역사를 이미 수업받은 기성세대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올바르게 내다볼 수 있는 발판을 이 책이 마련

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영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39-1호

박재동 지음 「만화! 내사랑」

만화방 아들로 만화가를 꿈꾸며 자란 박재동의 추억만큼은 아닐지라도 만화라는 말에 빙그레 웃음짓고 떠올릴만한 추억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만화방은 내게도 참새방앗간과 같은 곳이었다. 마을 뒷쪽 개울가에 함께 만화방은 동네 꼬마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방학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탄 난로가 가운데 놓은 좁은 만화방에 쪼그리고 앉아 만화책을 넘기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 동네 만화방을 들락거린다고 엄마에게 혼썰이 난 후로는 다른 동네로 원정까지 나갔다. 꼬박 하루를 어둠침침한 만화방에 틀어박혀 어깨가 쑤시는 줄도 모르고 넘겨대던 만화책 속에는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울렁거릴만큼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이 사랑을 했다. 온통 환상이고 사랑애기였다. 「캔디」 「롯데」 「올웨이스의 창」 「베르사유의 장미」…… 이젠 제목이나 이름조차 희미한 주인공들. 온통 사랑타령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법한 그런 만화지만, 그것을 통해 난 책읽기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킬킬거리고, 흑흑거리며 읽어던 만화책 권수가 날로 늘어감을 헤아림은 대단한 자랑거리이며 낙이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우리에게 만화는 불량식품만큼이나 접근이 금지된 놀이였다. 그래서 그림숨씨가 출중했던 만화방 아들 박재동은 “만화방 안 가기, 불량식품 안 먹기” 포스터를 그려야 했다. 그렇게 슬픈 사연을 간직한 만화는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예술이란 이름아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박재동의 만화예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만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예리하고 날카로우 보이는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감성도 물론 풍긴다. 그렇지만, 가장 값진 것은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의 그림들을 이 책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때는 어리고 너무나 다가가기 쉬운 매체라 미처 몰랐던 등장인물의 특성, 선의 아름다움, 배경의 풍부함, 작가의 고뇌와 정신까지 새롭게 일깨워주면서,

‘한겨레 그림판’이 재미를 넘어서서 보는 이로 하여금 ‘1초를 더’ 들여다 보게 만드는 비결은 「만화! 내사랑」(지인)의 글 속에 녹아 있는 세상을 향한 푸근함이 그림판에도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화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의 “만화 사랑하기”는 “사람 사랑하기”와 맞닿아 있다. 만화를 통해 세상을 배우며 자랐던 그는 만화를 그려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스스로를 화백이나 카툰니스트와 같은 어설플 호칭보다는 ‘만화가’라고 불러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만화가 박재동. 그의 「만화! 내사랑」을 읽으며 난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있던, 어린 시절 연탄 난로가 놓여진 조그만 만화방을 떠올리며 따뜻해 했다.

한성숙

서울시 도봉구 수유3동 168-50 태일빌딩 5층

「청산하지 못한 역사」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간 지 반세기에 이른다. 새삼스레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면 어색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쉽게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야단들이다. 또한 이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총체적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자주 들려온다. 무엇인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아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알게모르게 우리 사회가 수동적이고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 있어서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침, 내년은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간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그런데 바뀐 것은 많지 않다. 겉모습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의식은 별반 변화가 없다. 그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다. 교육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다.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 말기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중추적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발간된 「청산하지 못한 역사」(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청년사)를 읽어야 하는 까

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역사는 과거 일제 강점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아픈 역사였다. 최근 이에 대한 연구서가 봇물터지듯 출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서가 과거사에 매달려 있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경우는 다르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의 권력의 양지에서 해바라기처럼 이 땅의 정기를 갈아먹고 있는 사람들의 죄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정치·군·법조·미술로 나누어 박정희, 최규하를 비롯하여 한국 현대사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들의 친일 행각과 변신을 기술했다. 1권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들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잡지 못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 시기의 우리 역사는 친일 관료, 군대, 경찰을 그대로 온존 시킴으로써 민족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분단 고착의 길을 걸어들었다. 아마도 이 책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제2권은 여·야당의 정치인들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과 방응모, 유광렬을 비롯한 언론인, 문학인들의 친일 행각을 다루고 있다. 특히할만한 사항은, 종교인 가운데 적극적인 친일분자를 파헤쳤다는 점이다. 제2권에서 언론인의 친일 행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른바 제4의 권력기관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공정경쟁이나 정론창달과는 거리가 먼,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면모에 매우 강하다. 대부분의 일간지가 학술편제를 게재하고 있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일삼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작년 ‘위도참사’ 사건에서 선장 생존설 따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의 앞에서는 사족을 못쓴다. 제2권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점이다. 한국 언론의 비겁성 또는 역사 왜곡성이 바로 일제시대 언론인의 형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제3권은 교육, 학술, 경찰, 음악, 좌익계에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인사들의 행위를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 학술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학술원상 수상자로 이기문 교수가 선정되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의 논리는 이기문 교수의 우리말 연

늘 열려 있는 마음이 있는 곳



편집이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출판·제작이 고민이십니까?
 마루벌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루벌은 늘 열려있습니다.
 편집·출판·제작의 모든 어려움을
 따사롭게 감싸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일들

- 기획
- 디자인/표지·본문·광고·카드로그
- 편집/사사·사보·잡지·단행본 전문
- 출력/매킨토시 출력
- 재판/원색·단색제본
- 제작/인쇄·코팅·제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

구는 과거 일제시대 일인학자들의 연구를 답습한 결과 밖에는 안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학술이나 교육 면에서 일제시대 일인들이 조직적으로 왜곡한 학문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 국어학의 경우도 그렇다. 일인학자 시라또리나 쓰보이가 만든 신라계 남방언어설(신라계 언어는 일인들이 건너와 개척한 언어라는 설)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도 있고, '삼한고지명고'(1924년 「사학잡지」에 쓴 쓰보이의 논문)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한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광복 반세기가 다가오는 길목에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읽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내용이나 문제가 평이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다. 지난해 나온 「친일파 99인」보다도 더 힘이 있는 까닭은 바로 현재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용서하기 이전에 아픈 역사를 보듬을 수 있는 쉬운 책이 나왔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허재영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106 동화고등학교

「등대 아래서 휘파람」

「등대 아래서 휘파람」(한양출판)은 주인공의 나이 열두 살때부터 서른두살의 청년기까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제목의 여러 단편으로 맞물린 소설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유년기의 특이한 경험을 간직한 작가의 성장배경을 짚어볼 수도 있다. 그는 등대의 불빛 아래서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한다. 주인공의 가족들은 트럭기사에게 담배 두갑을 내밀어 겨우 차를 얻어타고 완도에서 광주 번두리로 이사온다.

유년기의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인물들은 끊임없이 아픔을 겪고 주인공은 이 아픔을 함께 겪어내려 한다. 사랑때문에 도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죽어버린 사내,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는 노인…… 이들을 보면서 주인공을 안타까움을 느낀다. 동시에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끊임 없는 관찰을 통해 그들의 행로를 분석한다. 주변인물들의 아픔과 그들의 회복을 바라던 주인공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큰 시련이 닥친다. 어머니는 누이 은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병원비가 없어 변변한 치료조차 못했기 때문에 누이 은매가 죽었다는 심한 자책감이다. 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주인공의 마음과 비등한 상처이다.

작가의 유년기 기억은 이 즈음에서 끝난다. 점차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주인공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곁들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까지 나아간다. 이 부분이야말로 작가가 자신의 유년기 체험을 들어 애써 진술하려고 한 의도가 배어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한 인간의 성장기를 드러낸 성장소설의 그 어떤 원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등대 아래서 휘파람」에 나타난 '휘파람'은 내용중에 두번 등장한다. 첫번째 휘파람은 가족들로부터 한없이 외유하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이다. 치매증세를 보이던 누이 은매가 죽고난 후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다.

“뿔하러 예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집이라고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갑네. 허어.” “대답 좀 해 보시란 말요. 뿔하러 예까지 오셨소. 무슨 꼴을 구경해 볼 작정으로 왔단 말요. 세상에 예비란 위인이…… 제 뿔줄이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흐흐.” 이때 주인공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힘껏 휘파람을 분다. 여기서 휘파람은 주인공에 있어 '가정불화'라는 어린이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잠시 잊어보고자 애쓰는 행위일 뿐이다. 불안한 가정에서 출발한 첫번째 휘파람은 이 소설의 말미에서 의미가 변형된다.

두번째 휘파람은 주인공이 이제부터는 희망을 노래하겠다고 다짐한 뒤 밤하늘의 어머니 별이 “걱정말아라. 애야.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께!”라는 환청을 들을 때 불어대는 휘파람이다. 그는 항구의 불빛을 향해 휘파람을 불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가 서서 유년을 회상하던 등대가 멀어진다.

「등대 아래서 휘파람」은 한편의 동화라고 해도 좋을 아름다운 서정성이 치열한 현실과 깊이 맞물려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뒤편 아픔을 되새기고 중내는 힘을 준다.

강훈식

서울시 도봉구 수유1동 461-76